

# 타이랜드의 역사적·사회적 개관

박상섭\*

<目次>	
I . 타이랜드의 역사적 개관	II . 타이랜드의 사회문화적 개관
1. 타이랜드 국민과 국가의 기원	1. 타이랜드의 인구와 종족구성
2. 아유타야왕국의 등장	2. 타이랜드의 종교
3. 근대 타이제국의 건설과 변화: 차크리 왕조	3. 전통 타이랜드의 사회구조: 후전인제
4. 현대 타이와 군부정치의 등장	4. 현대 타이랜드의 교육과 사회계급

## I . 타이랜드의 歷史的 概觀<sup>(1)</sup>

### 1. 타일랜드 國民과 國家의 起源

「타이」(Thai 또는 Tai)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文化的 또는 言語的 단일체가 역사상 처음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천여년 전의 일로 여겨진다. 이시기 이전의 수천년 동안 中國의 揚子江에서 인도네시아 列島 사이의 광활한 지역에는 수렵과 채취를 基本 生活方式으로 하던 다수의 종족 集團이 아직 덜 分化된채 거주하고 있었다. 3천년 전후의 경과를 거쳐 1천여년 전부터는 言語나 文化面에서 서로 區別되는 種族集團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믿어진다.

타이족의 經濟는 이때부터 주위의 他種族과 마찬가지로 米作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自給經濟를 유지하였다. 社會組織은 部落을 바탕으로 核家族 중심

\* 서울대 국제정치학.

(1) 本章에서는 타이史 전체보다는 1781~1782년에 수립된 Chakriz朝에 집중해 관심이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Sukothai 및 Ayuttaya國에 대한 기술은 歷史的 背景으로서만 취급될 것이다.

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部落 사이에는 금속제 연장, 도자기 및 소금 등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가 있었다. 이들이 거주하던 地域은 人口가 부족하였고 따라서 人力(manpower)의 가치는 상당히 높이 評價되었고 이에 따라 女性의 지위도 中國이나 印度에 비해 높았다.

이 당시 타이족이 거주하였던 地域은 오늘날의 타이랜드가 아니고 揚子江 이남의 남부 및 남서부 中國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때까지 이들이 國家를 이루었던 증거는 거의 없다. 타이족이 國家를 형성한 것은 이들이 北部 인도차이나로 옮겨간 이후 기원후 첫세기 말 무렵이었다.

타이족이 南下한 것은 中國의 확장에 따른 壓力 때문이었다. 이때 타이족은 지금의 雲南地域 北部와 北西部에서 651년에建設된 난챠오(Nanchao=南主國)國의 신민으로 보호받기도 하였다. 난챠오는 타이족의 국가는 아니었으나 난챠오의 存在는 타이 歷史에서 重要한 의미를 갖는다. 즉 中國과 인도차이나 사이에 강력한 國家로서 存在함으로써 타이族은 점차 中國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난챠오가 存在하던 9~10세기 당시 周邊에는 현 北베트남 地域에 있던 大越國, 中部베트남 지역의 참파(Champa)國, 北비마 地域의 푸(Pyu)國 및 남부 베마지역의 몬(Mon)왕국, 그리고 現在 캄보디아 地域에는 크메르(Khmer) 왕국 등이 해안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아직 國家를建設치 않았던 中部 内陸 인도차이나의 타이족을 고리 모양으로 둘러 쌓았다.

타이족이 자신들의 國家들을建設한 것은 11세기부터였는데 11~12世紀의 歷史에 대해서 現在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部分的인 記錄으로 미루어 볼 때 타이족들은 部分的으로 國家를建設하였던 바 北部의 요녹(Yonok)國, 現在 베마地域의 산(Shans)族들이 한때(11~12世紀) 강한 國家를建設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한편 11世紀 끝무렵 난챠오國의 지배지역에서 타이족의 세력이 강대해지기도 했었다.

13世紀 中葉에서 14世紀 中葉에 이르는 한 세기는 인도차이나 반도내에서 대변화를 經驗한 시기였다. 이러한 變化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세 가지의 큰 變化와 關聯된다.<sup>(2)</sup>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變地日帶의 계곡을 중심으로 살아온 타이족이 주

---

(2)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David K. Wyatt, *Thailand: A Short History*(New Haven: Yale Univ. Press, 1984.,) pp.38ff에 근거함.

野地域으로 나와 이 地域 본래의 國家들과 競爭하여 자신의 國家들을 建設한 일이다. 이들 새국가들의 地域의 分布는 대단히 넓어 西로는 北印度의 아쌈(Assam), 東으로는 北라오스, 南으로는 말레이 半島에까지 이르렀었다 두번째의 주요 發展은 6~9世紀에 이미 이 地域에 전파되었던 佛敎가 확고한 기반을 갖게된 사실인데, 이 당시 비로소 寺院制가 이 地域 전체에 보급되었다. 세번째로는 봉고의 발흥으로 中國의 影響이 이 地域에 積極的 形態로 미치게 된 사실을 말한다.

11세기와 12세기의 200年間 東南亞 地域은 베마의 파간(Pagan) 帝國, 캄푸չ야의 앙코르(Angkor) 帝國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이들이 13세기부터 쇠풍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대등한 군사력을 갖는 독립적 소국들이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개의 타이족 國家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國家들의 등장과 함께 당시까지 불분명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年代記들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이들 國家와 관련된 사건들—宗教行事, 戰爭, 人口移動, 王조내 갈등—에 대한 明白한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金石文 등의 부차적 資料들과 함께 보다 선명한 歷史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資料가 되고 있다.

이 시기에 출현한 타이족의 國家에는 現在 北 타일랜드 地域의 란나(Lan Na)왕국, 란나 바로 남쪽에 인접했던 파야오(Phayao)족, 그리고 파야오의 남동에 위치한 수코타이(Sukhothai) 왕국이 있었다.

수코타이를 東南亞 최대의 帝國으로 만든 람캄행(Ramkhamhaeng)왕이 즉위하던 1279년만 해도 수코타이는 옆의 앙코르의 위세에 눌려있던 소국에 지나지 않았으나 남캄행의 즉위 후 급속히 성장하여 란나國, 파야오國과 롬부리(Lopburi=말레이 반도와 앙코르帝國 사이의 남부 타일랜드 海岸地域)國을 除外한 타일랜드 전체를 정복한 帝國으로 성장하였다.

수코타이國은 政治·軍事뿐 아니라 文化·藝術面에서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는데 특히 독특한 佛像이 아직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람캄행王의 재직시 중부 타이語가 행정공용어로 確立되어 수코타이가包含하던 다양한 種族의 言語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남캄행王은 산스크리트語를 바탕으로 타이語의 字母를 처음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람캄행王의 사망(1298)후 수코타이 帝國은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하여 14세기 중반에 이르면 아유타야(Ayutthaya)를 중심으로 하는 새 국가에 의해

흡수되었다. 여하튼 대체로 이시기(14세기 中半)에 이르면서 타이는 東南亞大陸의 政治生活의 중심지가 되었다.

## 2. 아유타야王國의 등장

### (1) 王國의 시작

14世紀 中葉까지 타이 地域은 란나國과 란상(Lan Sang=오늘날의 라오스 國을 제외하고서는 소수의 부족국가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아유타야(Ayutthaya=남부타이랜드의 도시; 방콕 북부에 위치)를 중심으로 새 왕국이 1350년에 건설되고 이 나라가 東南亞 전지역에 대한 제국적 야심을 실현해 나가고 하나의 王國을 건설하면서 타일랜드의 역사는 하나의 轉機를 맞게 되었다. 즉 새로운 정치적 기도에 맞추어 대내적 결합과 대외적 승인이라는 면에서 그 이전의 역사에서 찾기 어려운 타이로서의 正體性을 보다 확고히 갖게 되었다. 또한 이때까지의 정치적 혼돈이 극복되고 새로운 정치질서가 뚜렷한 모습을 띠면서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發展이 이룩될 수 있게 된 구체적 背景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國際的인 면에서 두 가지가 重要的한 役割을 했었다고 지적된다(Wyatt, 1984:63ff).

하나는 타이가 中國과 印度 사이의 交易路에 위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政治的 安定을 가져오게끔 한 경제적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세일론系의 엄격한 小乘佛教가 전파되어 새로운 帝國에 필요한 位階秩序의 정당성을 提供해 주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원래 아유타야는 13세기까지만 해도 앙코르帝國의 속지였던 롬부리(Lopburi)내의 商業都市에 불과했다. 롬부리는 앙코르帝國이 内部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틈을 타 13세기 말부터 獨立을 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롬부리의 서쪽에 연결되어 있는 수판부리(Suphanburi)는 政治的 獨立을 누리고 있던 소국이었는데 이 地域內 우통(U Thong) 地域의 支配者였던 라마티보디(Ramathibodi)王은 1351년 아마도 이 지역에 콜레라가 만연함에 따라 이 都市를 버리고 롬부리 地域內의 아유타야를 도읍으로 정하고 새 國家를 창건하였다. 이것이 타일랜드 歷史에 있어 첫번째 統一國家를 形成한 아유타야 王國의 시작이다.

아유타야王國은 타이랜드 西部地域의 人力과 롬부리 地域에 남아있던 크메르王國의 政治的 技術 및 위신, 그리고 中國系人の 商業力を 그 基盤으로

하면서 타이史 最初의 絶對君主國家를 建設하였다. 王朝의 통치구조는 수코타이國의 양식을 많이 따랐으나 君主權神授說 같은 理論이나 儀式은 크메르의 影響을 짙게 받았다. 특히 수코타이와는 王의 지위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수코타이王의 경우 백성과의 關係에서 家父長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으나 아유타야 王朝下에서 君主의 위치는 한층 더 고양되었다. 즉 全國土는 君主의 所有로 관념되게 되었고 백성들의 삶 全體가 君主의支配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君主와 그의 所有物에 關聯되는 모든 것을 指稱하는 새로운 言語가 출현하였다.

君主의 行動을 規制하는 것은 佛教에서 規定하는 君主의 義務뿐이었다.

아유타야王國이 建設된 후 약 60년만에 아유타야王國은 東南아시아 全體地域에서 主要國家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라마티보디 1세는 재위기간(1351~1369)동안 內部體制의 안정화에 전념하였다. 이期間동안 앙코르帝國과 몇번의 戰爭을 치르면서 상당수의 크메르人們을 노예로 데려다 아유타야王國에 정주시켰다.

라마티보디王을 계승한 보로마라자(Borommaraja)는 東으로는 앙코르왕국을 정복하고 北으로는 수코타이國을 종속시켜 帝國으로서의 發展基盤을 닦았다. 이러한 王國의 성장은平民들의 人力에 대한 지배계급의 強力한 中央集權的 官僚的 統制를 초기부터 확보함으로써 可能하였다. 원래부터 人力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人力의 가치가 대단히 소중하였던 것이 당시 타이 地域의 사정이었다. 아유타야王國은 창건시부터 모든 自由民들을 官僚的 統制下에 장악하고 年 6個月間의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 이期間동안 自由民들은 公共事業이나 軍役에 從事하게끔 되었다. 이와 같은 官僚的統制에 기반하여 모든 周邊 地域은 中央集權의 으로 통치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國家들에 비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條件이었다.

이러한 人力에 대한 官僚的 統制가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와 같은 後見人制(patron-client relationship)를 선호한 自由民들은 갖은 수단을 써서 官僚制의 統制를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官僚制의 統制와 個人的 統制 사이에 발생한 긴장이 아유타야王朝史를 움직인 주요한 動力의 하나였다.<sup>(3)</sup>

(3) 이 문제는 2次大戰前까지의 타이史 全體에 걸쳐 똑같이 제기된 것으로 타이政 治史 이해의 관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유타야國에 관한 問題로는 Ibid., pp. 70-71을 볼것.

## (2) 國家法制度의 정비와 확장

타이史에 있어서 아유타야王國의 전혀 새로운 政治的 經驗으로서의 의의는 法制의 정비에서 관찰된다. 東南아시아 전역에 걸쳐 모든 司法的 判斷의 근거는 印度에서 전래된 다르마사스트라(Dharmasastra)였다. 즉 당시의 君主들은 별도의 입법 없이 우주를 지배하는 초월적 자연법으로서 다르마(Dharma)를 원용했던 데 비해 아유타야王國은 별도의 民法典과 形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立法을 통해 전체 國民들의 身分秩序가 확립되었던 바 이 位階秩序는 오래동안 전통 타이 사회의 기본적 골격이 되었었다. 이 제도는 9代王트라일록王(Borommatrialokanat, 1448~1488) 때 제정된 民間位階法(The Law of the Civil Hierarchy)과 軍 및 地方 位階法(The Law of the Military and Provincial Hierarchies)을 통해 확정되었다.<sup>(4)</sup>

트라일록王은 行政制度에 관한立法도 시도하여 이 이후 타이 統治組織의 골간이 되었다. 이 法에 따르면 모든 官僚機構는 칼라흘(Kalahom) 長官이 통제하는 軍事機構와 마하타이(Mahatthai)長官 하의 民間機構로 兩分된다. 이 양대 機構는 그 機能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되었다. 예컨대 마하타이長官(非軍事) 밑에는 4개 부서가 있어 각기 首都, 宮庭, 農業 및 財政을 관장하였다. 이 각 부서는 크롬(Krom)이라 불리우는 더 작은 부서로 나뉘었었다. 財政部 밑에는 對外貿易, 對外關係 및 流入外國人共同體의 問題를 담당하는 部署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行政의 效果는 15世紀 後半 이 王國이 지속적인 戰爭 수행기간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트라일록王의 재임 중인 1460년대 아유타야王國은 말레이 반도와 뱅갈만에 까지 統治地域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政治的 융성은 15世紀에서 16世紀에 이르는 國際交易의 급속한 증가에 그 基礎를 두었었다. 이에서 생긴 富를 바탕으로 군왕들은 강제징집을 위한 人口調查와 등록을 실시하고 軍隊를 強化시킬 수 있었다.

아유타야國이 관여한 國際貿易에는 이미 1511년 말레이 반도의 남쪽 말라카(Malacca)를 장악한 포르투갈 상인들과의 交易이 포함된다. 經濟的으로

(4) 이것이 소위 Sakdina 法인데 최근까지 타이社會權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이 체제의 자세한 내용과 실제 운영에 관해서는 B.J. Terwiel, *A History of Modern Thailand, 1767~1942*. St. Lucia, Queensland(Australia) : Univ. of Queensland Press, 1983, Ch. 1 參照.

는 포르투갈과의 交易이 아유타야國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없었으나 타이에 銃砲가 처음 소개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다만 포르투갈은 아유타야뿐 아니라 아유타야의 競爭國들에게도 銃砲를 販賣함으로써 아유타야가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안되었다.

### (3) 벼마의 융성과 아유타야國의 쇠향

13世紀 말 벼마에서 홍성했던 파간(Pagan) 帝國이 崩壞한 後 타이族의 일부인 산(Shans)族과 몬(Mon)族의 國家가 建設되는 동안 퉽구(Toungoo) 地域에서는 벼마족의 國家가 점차 자라나기 시작하여 1555년까지에는 산族과 몬族의 國家를 統合 또는 복속시킬 만큼 軍事的으로 成長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의 아유타야國은 왕위 繼承問題를 둘러싸고 내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벼마는 週邊國에 대한 擴張을 지속하고 이 軍事的 壓力を 이기지 못한 아유타야國은 벼마의 속국으로 전락하였다.

지난 두세기동안 계속되어온 國家制度建設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유타야 王國은 外賊의 侵入에 쉽게 무너졌다. 이것은 對外的 軍事力에도 불구하고 國家組織의 特性이 취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君王들에 의한 制度建設에도 불구하고 16世紀까지君王들의 權力基盤은 人的 忠誠關係였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마다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는 내분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國家의 힘을 와해시켰다. 즉 엘리트 集團內部의 파벌들 사이에 맺어진 人的 유대를 초월할 수 있는 忠誠의 확고한 形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리 방대한 官僚機構를 갖고 있었더라도 이 機構의 運營 自體가 엘리트들의 個人的 忠誠에 依存했다는 점에서 基本의 한계가 있었다.

1569년 벼마의 攻擊에 더 이상 저항치 못하고 王國이 崩壞된 것은 바로 이러한 人的紐帶關係의 해체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 (4) 아유타야 王國의 再建과 不安의 지속

벼마는 1569년 아유타야王朝를 滅亡시킨 후 지방 귀족 마하 타마라자(Maha Thammaraja)를 王位에 앉히고 屬國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타이의 반란을 염려하여 築城과 軍양성을 일체 금지시켰다. 이러한 악화된 사정을 이용하여 크메르國은 약 20년동안 여섯차례나 타이를 공략하고 재물과 人力을 약탈하여 갔다. 타이는 이것을 이유로 하여 軍增强과 築城을 벼마로부터 許容받았다. 이때부터 타이의 歷史는 다시 전환기를 맞기 시작하였다.

타이의 再建과 버마로부터의 해방은 나레수안(Naresuan)이라는 個人을 빼놓고는 說明되지 않는다. 그는 마하 타마라자의 아들로 태어나 버마에 인질로 잡혀가 오래 살다가 16세 되던 1571년 귀국하였다. 마하 타마라자의 出身地方인 피차눌록(Phitsanulok)의 行政官으로任命된 나레수안은 지모와 군사적 용망을 겸비한 인물로 전해진다. 1588년 종주국인 버마의 요청으로 軍事支援을 갖다가 버마지역 타이人們을 동반하고 귀국하여 獨立을 선언하였다. 이를 정벌하고자 버마는 軍을 파견하였으나 나레수안에 의해 격퇴당했다. 1593년에 이르러 버마는 대공세를 감행했으나 격퇴되었고 이후로 兩國關係는 오래동안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아유타야國은 다시 이 地域內에서 主要國家로 재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나레수안의 死後 17세기의 아유타야國은 王位繼承을 불안하게 만든 불균형적 制度發展을 관찰하게 되며 한편 西方과의 貿易關係의 增加를 보게된다

불안한 王位繼承은 이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했던 人力에 대한 통제가 王의 수중에 있지 않고 대신 칼라흘 장관과 마하타이 장관에게 統制權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었다. 따라서 王은 칼라흘과 마하타이의 權力を 분산하여 前者は 南部地域을 後자는 北部地域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權力분할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제 3의 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自由民의 통제를 피하였다. 또한 國王은 인력을 통제함으로써 權력을 확보한 장관들에 대항하여 商品과 交易을 통한 富의 증가도 기도하였다. 그리고 대외교역에 있어서는 外國人 專門人力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타이랜드와 交易한 西方國家에는 17세기 이 지역에 진출했던 모든 나라들이 포함된다. 즉 포르투갈, 흘랜드, 英國, 프랑스, 덴마크 등이 그 나라들이다. 특히 1680年에서 1688年 사이에는 아유타야國과 프랑스의 루이 14세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타이는 두번에 걸쳐 프랑스에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프랑스의 사절도 타이를 방문하였다.

18세기에 들어서서도 王位繼承 문제는 여전히 타이를 불안정 상태로 몰아 넣었다. 이 불안정 상태의 중지를 위해 王들은 귀족들의 勢力を 억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 자신 前王의 사망후 몇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보로마코트(Borommakot 1733~1758)王의 경우 주요 관서의 수를 늘리고(13개) 이들의 長을 맡은 귀족들간의 상호견제를 축발시킴으로써 王權의 안정을 피했다.

타이王國이 내부적으로 혼란을 계속하는 동안 벼마는 다시 통일國家를 형성하고 이곳을 근거지로 다시 주변지역의 정복사업을 시작하였다. 1765年부터 타이를 공략하기 시작한 벼마는 1767年 아유타야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이로써 아유타야國은 완전히 멸망하였다.

아유타야國이 멸망한 기본적 요인은 軍事力에 필요한 人力動原能力이 아유타야의 두번째 王國이 계속된 200年間 별로 개선되지 않았던 점과 王權繼承과 관련된 안정된 政治制度를 개발하는 데 실패한 데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한다.

### 3. 近代 타이帝國의 건설과 변화 : 쟈크리 王朝

#### (1) 탁신(Taksin)의 國權恢復

1767年의 아유타야 第2王朝의 멸망으로 타이는 영구히 政治的 분열·혼란상을 면치 못할 것같이 보일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10年도 채 안되어서 타이는 國權을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기왕에 獨立的 政治單位로 존재하던 북부의 란나國과 오늘날 라오스 지방에 해당하는 란상國의 대부분 참보디아, 그리고 말레이반도 대부분을 포함하는 이 지역 최대의 帝國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과거의 어떤 王도 감히 이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회복운동의 시발점을 마련해준 사람은 탁신이었다.

1767年 4월 벼마에 의해 아유타야가 점령된 이후 타이 전역은 도적떼들에 의한 약탈로 완전히 황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의 지배가문이나 관료를 중심으로 국가가 수립되기도 하였다.

크메르 지방에서는 아유타야 34대 王 보로마코트(Borommakot)의 아들인 테피피트(Thepphiphit)가 피마이(Phimai)國을 수립하였고 中北部의 사왕카부리(Sawangkhaburi)를 중심으로 해서는 승려들에 의한 국가가 생겨났다. 이 지역보다 약간 남쪽인 中部의 피차눌록(Phitsanulok)에서는 前國王의 한 지방관이 나라를 세우고 王國을 선포하였다. 말레이 반도의 나콘 시 타마라트(Nakhon Si Thammarat)에서는 이 지역 오랜동안의 지배가문이 王國을 선포하였는데 앞의 세지역보다 훨씬 안정성을 가졌다.

한편 탁(Tak=피차눌록의 서부 도시)에서도 지방관이었던 신(Sin)을 중심으로 세로운 國家權力이 조직되었다. 中國人을 아버지로 태어난 탁신은 개인적 용맹과 탁월한 군사전략·전술가로서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사람이었다. 그는 아유타야가 벼마군에 포위되었을 당시 지원군을 이끌고 아유타야로 오던 도중 사태의 불리함을 파악하고 쟈오프라야강의 西岸(방콕은 강 건너 東岸에 위치함)인 톤부리(Thonburi)에 주둔하고 벼마군과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이후로 6개월내로 벼마군을 축출하고 톤부리에 도읍을 정한채 王國을 建設하였다. 그는 톤부리를 중심으로 1768년 말까지는 과거의 아유타야王國의 영토를 재통일하고 이해 12月에는 정식 王으로서 통치를 시작했다. 이 이후 캄보디아 일부를 점령하고 뒤에는 타이지역 내의 獨立國이던 란나國은 톤부리에 조공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탁신의 지휘하에 타이帝國의 기반은 단단히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탁신은 일종의 偏執症에 사로잡혀 비정상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이러던중 1781년 지방에서 탁신王國에 대한 반란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한 장수는 오히려 이들 반란군과 합세하여 탁신의 태도를 주장하고 당시까지 탁신의 將帥로 있었던 쟈크리(Chakri)의 등극을 호소하였다. 이에 쟈크리는 수락하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톤부리에 입성, 탁신을 체포 처형하고 자신이 새 國王으로 등장하였다. 쟈크리가 창시한 이 王朝는 바로 현재까지 타이王家로 남아 있는 쟈크리 王朝이다.

## (2) 라마(Rama) I 세의 新타이

쟈크리는 원래 타이族의 아버지와 中國人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마하타이省의 중간급 관리였다. 원래의 이름은 통 두앙(Thong Duang)으로서 아유타야가 멸망할 때 라트부리(Ratburi)에 파견된 王使였다 쟈크리란 軍指揮官의 직명으로 그의 아버지가 라트부리 知事의 쟈크리를 지냈고 탁신이 벼마에 대항해 싸울때 자신(통 두앙)의 동생인 분마(Bunma)의 소개로 탁신 밑에서 軍指揮官을 지내면서 쟈크리의 칭호를 얻었다. 이들 형제는 특히 地方에서의 對벼마 전투에서 상당히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 형제가 1782年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을 때 앞에서 언급된 탁신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진압도중 반란군들에 의해 王에 추대되었다.

### [라마 1세의 치적]

쟈크리는 王名을 라마티보디(Ramathibodi)라 이름지었는데 후일에는 흔히 라마 I 세라고 부른다. 라마 I 세는 군사방위상 약점이 있는 톤부리를 떠나 강건너편의 방콕에 수도를 정하고 아유타야의 많은 건물들을 해체, 방콕으

로 운반하여 王宮을 건설함으로써 아유타야와의 연속성을 널리 알렸다.

라마 1세가 물려받은 유산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 뿐이었다. 그가 우선 시작한 것은 기율이 해이된 佛教의 승려제를 제거, 기율을 재확립하는 일이었다. 이에 맞춰 많은 寺院을 건설하고 經典을 정비함으로써 타이國家의 건설에 있어 宗教의 역할을 확인시켰다.

이와 함께 아유타야 王朝에 따른 國家儀式의 재확립, 문예활동의 진작, 法律 정비등의 작업이 시도되었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타이人들이 國王에 대해 기대하던 바에 부응하는 일이었다.

라마 1세하의 政府組織은 후기 아유타야와 유사하게 6부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중 4개는 지역담당이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하타이(Mahatthai)로서 방콕의 동부 및 북부지역을 담당하였다. 다음 칼라홈(Kalahom)省은 페트부리(Phetburi) 이남 지역(現 말레이 반도지역)을 관장했다. 프라클랑(Phrakhlang)首은 방콕 남쪽이 타이만일대를 관장하고 크롬 무앙(Krom Muang)은 首都와 그 외곽지역을 담당했다. 나머지 두개의 省은 土地省인 크롬 나(Krom Na)와 宮部인 크롬 왕(Krom Wang)이었다.

이들 6省의 長官들은 타이 全體를 대표하는 귀족가문 출신이었는데 대개 관직은 세습되었다. 마하타이와 칼라홈은 君主 자신과 밀접한 人的關係를 갖는 사람들에게 맡겨졌고 프라클랑과 크롬왕(宮都)은 專門技術 所有者에게 위탁되었다. 라마 1세 초기에 있어서 모든 長官職은 왕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졌음을 특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85년 벼마는 타이에 대한 대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라마 1세는 군비를 착실히 하여 戰爭에 승리하였던 바 이것이 타이 국가 存在에 대한 벼마의 최후의 위협이었다. 이러한 戰爭의 위협이 타이국가를 내부적으로 强化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바 戰爭의 위협 속에서 타이史에서 항상 문제시되던 人力에 대한 統制가 效果적으로 달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승리로 인해 國民들과 특히 타이의 속국들이 쟈크리왕조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게 했고 이것은 쟈크리王國이 帝國으로 發展하는 밀바탕이 되었다.

18世紀末까지 라마 1세의 타이는 安定에 접어들어 갔다. 특히 中國과의 貿易(쌀의 수출)을 통해 상당한 소득을 올렸는데 이 소득은 주로 宮庭과 귀

족가문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그러나 라마 1세가 經濟問題와 關聯해서 제일 관심을 둔 부분은 人力不足 현상을 막는 것이었다. 이 目的으로 그는 모든 自由民들을 상대로 소속된 지배자와 거주지를 표시하는 紋身의 令을 내렸다. 이 令은 이후 新王의 등극시마다 행하는 人間調查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모든 自由民들에게 賦役을 부과하였는데 초반의 年 6個月에서 후기에는 3~4個月로 감소되었다. 또한 君王의 家臣들에게는 義務施行 소홀을 엄격히 금지하고 대신 免稅와 같은 特權을 부여하였다. 끝으로 管理나 歸族들에게 人力이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심스럽게 人力狀況의 變動을 주시하였다. 그 결과 쌈크리王朝下에서는 귀족이나 관리들이 반역을 꾀할만한 강력한 人力을 갖지 못했었다

#### [타이와 邊境國과의 關係]

18世紀 말에 이르러 타이는 邊境에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기적 朝貢을 받았다. 이러한 여러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바탕으로 타이의 對外政策에는 더욱 확고히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타이 帝國體制는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5段階의 국가군으로構成되었다.

첫번째의 고리에 포함되는 나라들은 방콕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외에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들 國家들은 타이 외의 다른 강국에도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케다(Kedah), 트렝가누(Trengganu), 켈란탄(Kelantan), 카보디아 및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이 포함된다.

두번째 그룹에 속하는 지역은 도시국가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타이 帝國體制에 어느정도 統合되어 있었다. 이들은 조공을 바치는 이외에도 戰爭 또는 其他 公共役事時에 人力을 제공했다. 또 이들 地域의 지배가문은 타이 王家와 婚姻關係를 맺었고 내정문제에 대해서는 타이의 간섭을 받았다. 이들에는 창迈(Chiang Mai=란나국의 수도), 비에티안(Vientiane) 참파삭(Champassak) 및 파타니(Pattani)가 있었다.

세번째 그룹에 포함되는 地域은 타이 邊境의 地域으로서 타이長官의 통제를 받는 半獨立的 地域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에는 송클라(Songkhla), 나콘시타마라트(Nakhon Si Thammarat), 바탐방—시엠레아(Batambang-Siem Reap) 및 나콘 라차시마(Nakhon Ratchasima)가 있었다.

네번째의 그룹에는 中南部地域인 코라트 고원(Khorat Plateau)에 속하는 20여개의 소국들이 포함된다. 이들 地域은 세습되는 知事들에 의해 統治되

었는데 방콕정부에 조공과 人力을 提供하는 댓가로 보호를 받았다.

마지막은 왕에 의해任命된 官吏들이 직접 관장하는 内部核心地를 말한다  
이러한 權力體制를 바탕으로 帝國經濟가 실시되게끔 되어 있었으나 실제  
社會의 構成은 個人들간 또는 小集團간의 人的 紐帶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움직였기 때문에 공식 통치체계와 실제 사회관계 사이에는 상당한 마찰과  
긴장이 存在하였다.

이하튼 라마 1세에 의해 이룩된 새 王國은 아유타야國에 비해 훨씬 강력  
하고 유연성이 있으며 또한 복잡한 체제를 갖는 帝國으로 存在하였다.

### (3) Rama Ⅱ 세와 Rama Ⅲ 세

라마 1세의 死亡으로 그의 아들인 이차라순thon(Itsarasunthon)이 1809년 라  
마 2세로 등극하였다(공식 王名은 Phra Phatthaoletla Naphalai). 이 繼承  
은王子가 行政에 직접 관여하면서 統治準備를 한 후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統治가 과거와 같이 個人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王朝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타이史에서 分水嶺을 이루는 사전인데 이와 아울러  
政府機關도 점차 制度化되어 갔다.

즉위 후 라마 2세는 주요 長官職의 變化를 시도하였는데 새로 임명된 사  
람들은 주로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長官들에 의한 王權 잠식  
을 두려워한 이유에서였는데 王家의 많은 子孫들이 따라서 政府運營에 직접  
참가하였다.

라마 2세 치하에서는 큰 戰爭은 없었으나 버마에 대한 위협이 상존했고  
새로 강성해지기 시작한 베트남으로부터의 위협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또한  
유럽에서 나폴레옹戰爭이 끝나면서 東南亞 일대에서 西歐諸國의 통상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했는데 이 여파로 西方諸國으로부터의 壓力이 증대하였다.

뚜렷한 사건없이 15年間 在位한 라마 2세의 뒤를 이어 라마 2세의 庶子로  
最年長者였던 체차다보딘(Chetsadabodin)이 라마 3세(王名=Phra Nangklaو)  
로 즉위하였다.

관례에 따르면 王位繼承은 適子中 最年長者가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 20세이던 몽쿠트(Mongkut) 왕자가 繼承하게 되었으나 그보다 16  
세 연상인 치차다보딘 왕자와의 갈등이 문제될 수 있었다. 이것을 예견한  
라마 2세는 자신의 死亡直前 몽쿠트왕자를 승려로 만들어 그를 政治的 갈등  
에서 빠지게 하고 대신 체차다보딘의 계승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라마 3세 즉위 직후 그가 부딛친 첫번째 問題는 對外關係였다. 1824년 5월 英國은 베마의 印度로의 越鏡問題를 둘러싸고 戰爭을 선포하였다. 타이는 英國의 말레이반도로의 친격을 걱정하고 방비태세에 들어갔다.

타이에 대한 英國의 의도는 베마와의 戰爭에서 타이의 도움을 얻거나 최소한 타이의 中立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특히 말레이반도로 진출함에 따라 타이와 직접 연결되게 됨으로써 타이와 안정된 평화관계의 유지를 바랬다. 따라서 1825년 12월 영국 東印度會社는 헨리 버니(Henry Burney) 대위를 타이에 사절로 파견, 타이 안에서의 西方通商活動에 대한 제약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타이政府는 두가지 의견으로 갈라졌으나 결국 친선쪽을 결정,兩國은 1826년 6월 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 버니條約으로 불리우는 이 條約은 타이의 積極的인 對西方關係의 典型이 되었다는 점에서 歷史的으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라마 3세의 재임기 간동안 승려가 된 몽쿠트왕자는 佛教經典에 대한 研究에 몰두하는 한편 西洋文物, 특히 外國語를 익히는데 정진하였다. 라마 3세는 자신이 몽쿠트의 王位를 찬탈한 듯한 미안한 기분을 계속 갖고 있다가 1851년 死亡直前 몽쿠트와 그의 동생 추다마니(Chudamani) 왕자를 공식적으로 공동후계자로 지목하여 王位 繼承問題를 해결하였다.

#### (4) 몽쿠트와 近代타이國의 準備

다른 아시아國과 마찬가지로 타이國民에 있어서 19세기 後半은 그들의 政治的 運命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다. 모든 아시아國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狀況은 西歐國家들의 帝國主義的 進出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자체의 改革에 성공하고 外勢에 效果的으로 성공한 나라는 自身의 政治的 獨立을 維持할 수 있었음에 반하여 그렇지 않은 못한 나라는 植民統治의 굴레에 떨어져 항구적 후진성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양갈래의 갈림길에서 스스로를 改革함으로써 對內外的 危機狀況을 극복할 수 있었던 몇 안되는 국가들 중에 바로 타이가 포함된다. 그리고 타이가 이러한 歷史的 도약의 계기를 가질 수 있었던 여러가지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라마니 4세 즉 몽쿠트(Mongkut) 王과 그의 아들인 라마 5세 즉 출라롱콘(Chulalonkorn)王이 주도한 60年間의 改革努力이 있다.

#### [라마 4세의 對外政策]

몽쿠트가 라마 4세로 즉위한 직후 첫번째 해결해야 될 問題는 英國과의

關係改善이 있다. 라마 3세의 재위 말년인 1850년 美國과 英國은 각기 사절을 타이에 파견하여 貿易의 장벽 제거, 公式 外交關係의 樹立 및 自國民에 대한 領事裁判權(즉 治外法權)을 요구하였다. 특히 英國의 경우 이러한 요구는 中國과의 아편전쟁(1839~1842)에서 승리한 이후로 보이기 시작한 아시아 國家들에 대한 공격적 外交의 일환이었다.

英國과 美國의 이러한 交涉提議에 대해 타이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무런 합의점을 갖지 못한채 英·美使節들은 타이를 떠났었다. 이때 타이政府가 英·美와의 交涉에 消極的이었던 것은 라마 3세의 후임자 選定을 돌려싼 國內政治의 갈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英·美와의 交涉窗口였던 쟁오프라야 프라클랑(Chaophraya Phraklang)과 그의 동생 프라야 시피파트(Phraya Siphiphat)는 프라클랑省과 칼라홈省에 權力基盤을 갖고 있고 後繼繼承問題에 있어서는 몽쿠트의 지지자였다. 당시의 방콕의 분위기는 英·美使節들의 오만한 태도에 심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바 만일 위의 두사람이 영·미에 양보를 할 경우 반대파가 이것을 시비로 삼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몽쿠트의 안전한 즉위를 위해서는 일단 交涉을 좌절시킬 必要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몽쿠트는 즉위 직후 싱가포르에 주재한 英國 總督과 홍콩에 새로 부임한 總督 존 보우링(Sir John Bowring)에게 서신을 發送하여 英國의 인내를 요구하고 곧 直接 交涉議事를 전했다. 한편 印度에 駐在하던 英國管理들에 비해 反 타이적 태도를 덜 가졌던 英國外務省은 1852년의 第2次 英· 베마戰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존보우링을 대표로 하는 交涉使節團을 1855年初 타이에 派遣하였다.

이들이 도착한 후 회의 2주일만에 타이의 貿易開放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내용은 輸入關稅 및 輸出稅의 廢止, 英國人の 治外法權保護, 英國人 보유 土地稅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 합의에서 특기할 부분은 타이 政府가 오랫동안 보유해온 貿易獨占權이 廢止되었다는 점이다(단 아편은 例外). 이러한 政府의 貿易獨占權이 깨지면서 타이 政府와 高位管理들의 權力基盤은 상당히 동요되었다. 조약후 1년간 政府 재정은 대단히 어려워졌으나 타이 政府는 아편, 도박, 酒類 등에 대한 獨占을 통해 조약전의 狀況을 維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몽쿠트의 對應은自身의 權力を 위태롭게 하는 西洋進出의 의미를 정확히 把握할 수 있었던 데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把握은

이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발간되는 英字 新聞을 이미 그가 오랫동안 읽었던 데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몽쿠트는 英國과의 關係가 타이에 대한 英國의 일방적 壓力으로 결과된것을 막기 위해 다른 西方國들, 특히 美國과 프랑스와도 조약체결의 의사가 있음을 천명했다. 이런으로써 타이에 대한 西方國들의 利害가 서로 충돌함으로써 균형되기를 기대했고 나아가서는 한 나라내의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勢力들간의 대립도 이용하고자 했다. 예컨대 타이에 대해 서로 다른 立場을 보이던 英外務省, 印度總督部 및 말레이 반도의 植民官廳의 對立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했다.

#### [國內改革의 問題]

外交政策의 급격한 變化에 부응하는 國內改革은 몽쿠트王 治下에서는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즉 과거의 統治方式이 그대로 維持되었다. 예컨대 行政業務는 과거와 같이 官吏의 私家에서 이루어졌고 司法은 대단히 個人化된 채 있었고 社會的 壓力에 쉽게 굴복하였다. 管理任命에서는 네흐티즘이 만연하였다. 政府의 각 部署는 여전히 각자대로의 人力確保에 努力하였는데 이것은 勞動力에의 권리가 收入 및 政治權力의 基本資源이었기 때문이다.

政府內의 3大 주요 部署는 마하타이(北部地域 관할), 칼라홈(南部) 및 프라클랑(방콕부근의 海岸 管轄)이었는데 이들은 각기 多樣한 機能을 동시에遂行하였다. 즉 각地方의 統治外에도 收稅, 公共事業 組織, 군사양성, 司法府 運營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몽쿠트王이 改革을 지연시킨 가장 重要的 이유는 당시의 政治狀況이 改革을 효과적으로遂行할 수 있는 政府의 추진력은 許容치 않는 데 있었다. 즉 政府의 각 部部署들은 라마 1세때에 비해 王權의 統制를 벗어나서 기능하고 있었다. 예컨대 칼라홈과 프라클랑은 수십년간 한개의 가문에 의해 장악되었고 이 부서들의 관리는 자신들의 우두머리에 個人的 忠誠을 바치는 家臣들이 맡았다. 이러한 양상은 中央 및 地方官署 全體에 걸쳐 공통된 것이었다. 이러한 기성 체제에 대한 攻擊은 19세기 타이 社會의 結集力의 바탕이 되던 大家門, 族閥들과의 대결을 수반할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 타이의 모든 社會關係는 上司와 部下 사이의 個人的 紐帶에 의해 수직적으로 構造화되었고 水平的 社會紐帶感은 없었다. 따라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야만 할 改革의 限界에 대해 몽쿠트王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지 완만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推進하고 攻擊的으로 推進하지 않았다. 그가 必要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改革基盤의 安定性을 建設하는데 必要한 광범위한 協調였다.

따라서 그가 취한 일들은 조심스러운 것 뿐이었다. 예컨대 政府新聞의 發刊을 통해 法律을 公表한다든가, 공식 행렬중인 王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傳統의 廢止, 訴願의 직접 호소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 예였다. 또한 노예의 生活條件改善, 婚姻決定에 있어 女子의 選擇權 許容等도 그가 취한 일이었다. 그는 既存의 理解關係를 해치지 않는 기술적 업무수행, 예컨대 번역, 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서기업무, 군사훈련, 印刷, 警察行政 등과 같은 일에 外國人們을 상당수 고용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상대적으로 덜 重要한 것이었으나 後日 타이가 外國과의 交涉過程에서 文明國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한 기초사업이었음이 뒤에 인정되었다.

#### (5) 출라롱콘王과 近代타이國의 確立

[權力掌握의 準備, 1868~1885]

몽쿠트王이 死亡한 1868年까지 몽쿠트의 成年王子들은 이미 死亡했었기 때문에 그를 繼承할王子인 출라롱콘은 아직 15세에 불과했다. 몽쿠트는 출라롱콘이 20세 될 1873년에 王位繼承할 것을 예상하고 그에게 海外留學을 포함한 近代式 教育으로王子를 訓練시켰다. 그러나 1868年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15세인 출라롱콘은 몽쿠트가 미리 정해놓은 차오프라야 수리야웡(Chaophraya Suriyawong)을 섭정으로 하면서 직위했다.

수리야웡은 自身의 섭정직을 통해 自身의 두 아들을 각기 칼라홈과 프라클랑의 장관으로任命하고 조카를 土地省長官으로 만들므로써 1883年 그의 死亡時까지 타이 國內政治에서 압도적 위세를 발휘하였다. 따라서 출라롱콘王의 權位는 수리야웡의 權勢에 도전할 처지에 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環境 속에서도 수리야웡은 출라롱콘의 教育을 계속시키고 1873년에는 공식으로 統治權을 이양하였다.

1873年 以後에야 비로소 新王의 性格이 公開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그는 1873年 11月의 공식 대관식을 마치면서 近代指向의 改革政策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우선 밀린 방콕내의 訟事들을 정리하고 司法節次를 간명히 함으로써 舊體制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또한 中央集權의 豫算制를 導入하고 도박 및 아편의 獨占에 대한 公開 경매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득권층에

도전하였다. 또한 英國式樞密院(Privy Council, Council of State)制를 설치하여 젊은 사람들을 기용하고 政策諮詢權, 調查權, 立法權 등에서 舊勢力들을 소외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王權의 強化가 근본 동기였다. 舊勢力들이 이러한 改革措置에 대한 西洋制度導入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것에 대비해 출라롱꼰은 이들 조치를 애써 佛教의 입장에서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舊勢力들은 곧 저항에 나서 實力으로 王權의 제한을 기도하였다. 즉 1874년 겨울 副王으로 있었던 위차이찬(Wichaichan)은 軍隊를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펴하다가 실패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이유로 그의 特權을 축소하려 하자 그는 英國公使館에 대피하여 출라롱꼰에 대항하였다. 위차이찬은 방콕의 귀족들의 지지와 방콕주재 英國公使의 후원으로 王과 대결하였다. 王室은 이에 英國 外務省과 협상하여 위차이찬에 대한 후원을 철회하게 함으로써 위차이찬은 많은 特權을 포기한채 1875년도 宮으로 귀환하였다. 이 위기는 改革政治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내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출라롱꼰은 改革政策의 상당부분에 대해 양보해야만 하는 뒷가를 치루었다.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리야윙과 위차이찬의 사망으로 國王의 권위의 폭은 커져가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출라롱꼰은 수리야윙 가문과 대립하는 가문의 인사들을 등용시키고 새로운 관리양성을 위한 近代的 教育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近代式 教育에 귀족들의 반응은 消極的이었다. 다만 그의 형제를 포함한 王家의 청년들은 신식 教育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호응함으로써 王家는 타이社會에서 가장 훌륭한 教育을 받은 集團이 되었고 이들은 國王의近代化 改革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원래 타이의 관례上 王族은 大家門과 婚姻關係를 맺지 않는 한 고위 관직을 담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출라롱꼰은 이들을 위해 宮庭內部에 새로운 부서를 증설하였다. 특히 外交交涉과 財政監督 業務에 이들을 기용하였다. 1885년에는 프라클랑을 들로 나누어 外交部와 財政府로 獨立시키고 외삼촌인 데바웡세(Devawongse)와 자신의 동생인 차카라파트(Chakkraphat)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기타 주요 관직에도 자신의 형제나 조카들을 임명하였다. 이렇게自身이 直接任命한 관리들을 갖게 됨으로써 출라롱꼰은自身이 直接統制하는 政府를 갖게 되었고 改革을 의도대로 推進할 수 있었다.

[改革과 外勢의 壓力]

1885年 王家出身으로 外國留學을 마치고 돌아온 11명의 청년들은 출라통 콘王을 상대로 內政改革案을 提出, 점증하는 外勢의 壓力を 극복할 수 있는 方案의 강구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內政改革과 獨立維持의 연결성에 대한 問題는 國王自身도 어느정도 認識하고 이 改革案에 대한 대답으로 人材不足의 問題를 제기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外務相 테바윙세에게 歐洲國들의 政府組織研究를 명하고 이 報告書에 따라 출라통콘은 1887年 동등자격 12명으로 構成되는 새 內閣을 組織하였다. 이로써 內閣은 內務, 戰爭, 外務, 財務, 農業, 宮庭(首都圈의) 地方行政의 舊 7省에 公共事業, 教育, 司法, 軍, 秘書의 新 5省을 합쳐 12部로 構成され 되었다.

더욱 특기할 것은 새로운 組織外에 1892年的 內閣制政府로 이르게 한 새로운 國家政策決定方式이었다. 즉 順례없던 일로 각료들은 하나의 단체로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열어 國家政策決定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國家財政의 中央集權化를 도입함으로써 과거에는 財政上의 독자성을 누리던 各部는相互依存關係에 접어들게 되었다. 끝으로 情報의 교환이 各部 사이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大規模의 改革作業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改革을 통해 타이政府는 安定性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邇邊의 屬地에 대한 統制權도 強化되었다. 이에 따라 라오스 地域에 대한 타이의 影響力은 더욱 强化되었다. 그러나 이때 英國의 베마 進出에 맞서 메콩강 邇邊으로 力을 확장하던 프랑스는 라오스에서의 타이 지위 강화에 경계하고 궁극적으로 라오스 全體에 대한 타이의 宗主權 자체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政府는 1893年 메콩地域 中部에 주재하던 프랑스 商社의 의문의 爆發事件을 구실로 타이政府에 보상을 요구하였다. 보상으로서 프랑스 政府는 라오스 全地域의 프랑스에 대한 讓與, 賠償金 300만 프랑 등을 要求하였다. 그리고 要求條件의 관철을 위하여 해상봉쇄작전을 실시하였다.

타이는 英國의 중재 또는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英국이 아무런 積極的 姿勢를 취하지 않게 되자 프랑스 要求에 굴복하였다. 이로써 英국과 프랑스는 메콩강 北部에서 적접경계를 같이 하게 되고 이 地域의 새로운 强者로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엽에 들어오면서 타이는 英·佛과의 不平等條約의 改正을 위해努力하였다. 프랑스와의 交涉에서는 西部 캄보디아의 상당한 地域을 割讓하

는 맷가로 1907年 새로운 條約을 締結하였고 英國과의 1909年 새 條約을 얻어내기 위해 타이는 말레이 반도의 상당지역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결과 타이 영토는 라마 3세때의 약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 [近代化]

1890년대 英國과 프랑스가 타이 政府를 條約締結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이 政府의 安定性을 믿었기 때문이다. 즉 國際條約을 締結하고 준수함으로써 歐洲國들의 條約上 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能力を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能力은 1892년의 改革이 낳은 예상치 않은 結果로 얘기될 수 있다 1892년 改革의 主役은 출라통콘王의 이복동생 담롱王子(Damrong Rajarubhab)였다. 30이 갓넘은 나이에 칼라홍 長官이 된 담롱은 中央集權的 地方行政改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즉 그는 여러개의 地方行政區域을 한 單位로 묶어 中央政府 派遣管理의 直接 監督下에 둠으로써 地方收稅와 支出을 통제하였다. 이 方式은 그후 10년동안 全國으로 擴張되어 國家收入을 倍增시켰다. 이에 따라 治安維持, 社會事業 등 分野에서 전례없는 國家活動이 가능케 되었다.

이와 함께 財政面에서는 中央集權的豫算編成이 이루어졌고 나폴레옹法典을 모델로 한 法制의 정비도 達成되었다. 1902年에는 史上 처음으로 國民皆兵制를 실시하였다. 1905년의 개혁안은 과거 부역제를 점차로 廢止하고 現金人頭稅制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改革政策의 結果로 타이 社會의 變化는 점차 可視化되기 시작했다 우선 地方의 土豪 및 大家門이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아울러 다수의 農村의 人口가 빙곡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하여 쌀의 生산을 위한 새로운 土地의 개간이 增加하였다. 따라서 쌀의 輸出量은 급증하였고 農業技術發展에 박차가 가해졌다. 이에 아울러 農業生產은 市場販賣를 위한 商業的目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王室의 支援하에 國民精神의 원천으로서 佛敎의 철저한 改革이 이루어졌고 또한 寺院의 教育機能이 強化되었다. 이와 아울러 初等教育의 義務化도 시도되었다. 이렇게 宗敎와 教育의 改革을 통해 새로운 市民意識이 함양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를 계기로 타이史上 처음으로 單一國民意識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과거의支配的 人間關係였던 後見人—被後見

人(patron-client) 關係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점에서 國王의 위치는 더욱 重要하게 부각되었다.

출라롱콘王 재임시의 이러한 變化와 더불어 지적해야 할 새로운 사태의 하나로 中國人의 타이 社會 속으로의 強力한 進出이 있다. 1850년 現在 30 萬이었던 中國人の 수는 1910년 79만으로 增加하여 總人口 中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5%에서 9.5%로 배증하였다. 土地에 연고가 없는 이들 中國人們은 市場部門으로 進出하여 近代化된 產業部門에서의 이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다. 또 이들은 타이의 쌀 輸出에 必要한 制度와 用役의 네트워크, 즉 銀行, 倉庫, 都・小賣商, 방앗간, 바지(barge)선의 全부門을 掌握하였고 때로는 地方旅行을 통해 잉여 미곡을 수집, 獨自의 輸出業務도 擔當했다.

變化된 타이의 모습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로서 우리는 타이의 새로운 官僚機構의 구성을 들 수 있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國王의 行政改革을 擔當한 推進勢力은 王室出身의 새로운 官僚機構였다. 실제 이들의 社會的 政治的 위치는 大家門으로부터 소외된 것이었기 때문에 출라롱콘의改革은 “위로부터의 改革”이라기 보다는 “옆으로부터의 革命”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을 것이다.

#### (6) 라마 6세와 타이 民族主義

라마 4세(몽쿠트)의 準備를 바탕으로 라마 5세(출라롱콘)는 近代國家로서의 타이國家를 확고한 기반 위에樹立하였다. 즉 이들은 近代國家로서의 타이의 制度(官僚機構, 軍隊)의樹立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民族國家(nation-state)로서 타이를 말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즉 타이國家의 運營에 參加하는 인적 요소는 주로近代式 教育을 받은 王族들에게 국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라마 6세(바지라부드 Vajiravudh)는 비록 엘리트 水準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民族으로서의 타이에 대한 의식을 작성시켰다는 점에서 그의 先任者들과 다른 성격을 가졌다.

이미 14세때인 1895년 출라롱콘의 後繼者로 확정된 바지라부드는 英國에서 陸士와 옥스포드에서 전형적 英國式 엘리트 教育을 받고 王世子로서도 實現行政에 관여하는 등 30년의 準備 끝에 1910年 즉위하였다.

즉위 초에는 아무런 組織的 지지세력이 없었던 까닭으로 전면적改革을 推進하지는 않았다. 대신 1911년에는 自身이 直接 統制하는 두개의 軍組織을 결성하여 自身의 權力基盤을 構築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 하나는 宮部

長官이 直接 관장하는 王室近衛隊였고 다른 하나는 全國을 충원기반으로 하는 대중적 準軍事組織인 猛虎軍團(Wild Tiger Corps)이었다. 이 組織의 機能은 모든 國內外 敵으로부터 “民族, 宗教 및 國王”을 보호하는 것으로 明示되었다. 라마 5세의 진정한 目的은 기성 官僚機構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세로이 충원하여 새로운 位階秩序를 만들어 기왕의 경직된 官僚秩序를 벗어나는 統治手段을 창출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王의 政策에 기성 組織들의 반발도 심하여 예컨대 1912년에는 青年將校들을 중심으로 하는 쿠데타가 發生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최초에는 바지라부드王에 대한 個人的 불평에서 시작하여 絶對君主制 自體에 대한 반대까지 發展하여 거사를 貼했다.

이러한 거사는 비록 失敗로 돌아갔으나 國王은 이 거사의 準備者들이 제기한 問題들을 정식으로 採擇하여 어떠한 變化를 가져오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國王이 直接 政府業務에 干涉을 시작하기 위해 廣範圍한 人事改革을 단행하였다. 다음 赤字豫算을 克服하기 위해 專門家들로構成된 國家收支調查委員會를 설치하였다. 그는 또한 對國民弘報作業을 보다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新聞 등 대중매체의 創立과 利用에도 努力하였다. 이외에도 새로운 國旗의 제정, 國家公休日制導入, 女性地位向上, 近代式 教育機關의 擴張, 姓制의導入 등이 그의 治下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高等教育에도 관심을 두어 그의 父王인 출라롱콘의 이름을 딴 출라롱콘 대학을 1916年에 創立하였다.

이러한 모든 作業의 바탕에는 “타이 民族”이라는 基本思想이 깔려있었다. 이것이 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近代 民族主義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後日 그렇게 發展할 수 있는 民族의 象徵을 組織的으로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民族主義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모든 國民의 사고와 행동을 위한 集團的 지표로서 民族의 概念을 의식적으로 강조하였는데 “民族—宗教—君主”(Chat-Satsana-Phramahakasas)의 三位一體的 공식으로써 제시되었다.

그러나 바지라부드의 民族主義는 民族構成員들의 平等性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君王을 頂點으로 하는 位階秩序를 전제로 한만큼 近代 民族主義라기보다는 엘리트 民族主義에서 머물러 있었다.

1次大戰中 바지라부드는 聯合國들에 公式 가담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1,300명 軍隊를 프랑스에 派遣하였다. 이것은 東南亞에서 獨立國으로 軍隊를 派

遣한 유일한 경우였다.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회의에 공식적으로 참가한 타이는 꾸준히 外交交涉을 進行하여 과거 西方國들과 체결한 不平等條約의 개정을 촉진하였다. 이 交涉은 英佛의 비협조로 쉽게 進行되지 않았다. 타이는 두 사람의 美國人 즉 엘든 제임스(Eldon James 1924년부터)와 프란시스 세이어(Francis B. Sayre: 월슨대통령의 사위)를 外交 고문으로 두고 장기의 交涉을 推進한 끝에 1925년 2월과 7월 각각 프랑스와 英國의 양보를 얻어냈다. 구체적으로는 領事裁判權(治外法權)의 廢止와 關稅의 自律賦課權을 얻어내었다.

#### (7) 라마Ⅶ세 : 최후의 絶對君主

1925년 라마 6세의 이른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동생인 프라자디폭(Praja-dhipok)가 라마 7세로 王位를 이었다. 그가 즉위한 1925년 타이國家의 가장 큰 問題는 심각한 財政難이었다. 이러한 財政難으로 인해 官僚機構에 대한 政府統制도 줄어들었고 官僚機構들 사이의 분쟁도 늘어감으로써 政府의 指導力이 마비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지도력의 마비로 인하여 사실상 거의 大部分 政府官吏로 일하던 새로운 도시 엘리트들은 絶對君主制 위에 서있는 모든 政治社會體制의 效果性에 대해 도전은 아니더라도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문은 1920년대 중반 당시 타이史上 최초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輿論을 통해 급작히 社會各分野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타이 사회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 중의 하나는 타이 지식인 계층이었다. 海外教育의 증대와 国內高等教育機關의 설립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지식인 집단은 도시의 여론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은 君主制의 효과성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가하였고 특히 여론기관인 신문들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전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반응하여 라마 7세는 君主制와 정부에 대한 신념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개혁을 촉진하였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政府最高機關으로서 國家最高委員會(The Supreme Council of State)를 設置하고 내정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어느정도 결실을 거두어 1920년대 중 예산도 정상화되고 비판도 어느정도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로서는 타이內의 少數民族의 동요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1930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恐慌의 여파가 타이에도 밀이 닥쳤다.

1930～1932년까지 2년간 쌀의 價格은 3분의 2로 떨어졌고 土地價格은 6분의 1로 하락하였다. 쌀이 타이 經濟에 미치는 지배적 역할 때문에 이것이 미친 影響은 파국적이었다. 특히 농민들의 조세부담이 어려워지면서 政府豫算은 3분의 1 감축하였다. 이 상황에서 政府는 다수의 관리를 면직시키고 임금을 동결하고 봉급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들로 구성되는 타이 中產層이었고 農民層은 現金流通의 중단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農民層이나 中產層은 그 자체 안에서 서로 분열되어 있었고 또 이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도 갖지 못했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의 불만이 정치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향에서 라마 7세는 정부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군왕은 首相을 임명하고 이 首相에 政府運營權을 위임 토록 되어 있었다. 首相은 각료들을 지휘하여 國家의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이 실현되기도 전에 1932년 6월 24일 青年將校 및 관리들을 중심으로 하는 쿠데타가 발생, 이 새로운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다.

#### 4. 현대타이와 軍部政治의 登場

##### (1) 1932년의 쿠데타

타이에 있어서 絶對君主制에 종말을 고한 1932년 軍部쿠데타와 함께 타이 現代史는 시작된다. 1932년의 쿠데타와 함께 타이軍部는 단순히 政治勢力으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 전체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하나의 社會制度(Social Institution)로서 자신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사정은 대체로 1957년 전후로 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1890년대부터 출라통콘왕은 국내정치 속에서 軍部가 결국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할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그 이후 30여년간 군부 쿠데타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점을 고려한다면 1932년의 쿠데타는 그리 놀랄만한 일은 못된다.

원래부터 軍部는 타이 社會안에서 가장 위신있는 사회제도였다. 따라서 라마 5세에서 7세까지 王族의 자손들은 직업으로서 軍을 택했었다. 어떤 의미에서 타이 社會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가치들, 예컨대 位階秩序

등이 군대 안에서 가장 전형적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또한 社會的 유대의식도 軍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타이 民族의 守護者로서의 役割이 주어졌고 따라서 나름대로의 강력한 使命感을 갖고 있었다. 軍部도 자체내에 分裂的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民間官僚에 비하면 훨씬 강력히 結集되어 있었다.

1932년의 쿠데타는 흔히 “革命”으로 치칭되나 그것이 장기적 효과면에서 는 革命의 있을지 모르나 사건 자체는 거리가 먼 소수의(114명) 음모자들에 의한 쿠데타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중적 지지기반을 전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뒤에 머물러 있고 전면에 上級者를 내세웠다. 이들은 6월 27일 임시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70명의 임명적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공식 헌법이 선포될 무렵 지배연합 간에는 상당한 분열이 노정되어 1933년 6월에는 주도적 青年將校들을 중심하는 새로운 無血 쿠데타가 다시 발생하였다. 그러나 내분은 사라지지 않고 1933년 10월에는 출라롱콘王의 손자인 보워라데트(Boworadet) 왕자는 지방에서 군대반란을 추진하였으나 몇 주일만에 진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34년초 프라자디 폭(라마 7세)王은 신병치료를 위해 英國으로 출국하였다가 3월에 공식으로 퇴위하였다. 타이 의회는 그의 후계로 당시 스위스에 유학중이던 10세의 아난다 마히돌(Ananda Mahidol) 왕자를 국왕으로 추대하였다.

1932년 타이 경제가 최악 상태에 들어갔던 시기에 軍部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타이 經濟는 世界經濟 회복에 따라 같이 회복됨으로써 軍部政治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내부의 갈등은 극심하였다. 그러나 이미 1938년까지에 이르면 아무도 絶對君主制의 복귀를 더 이상 생각치 않게 되었다. 그리고 立憲政治가 당연한 制度로 광범위하게 수락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대중적 政治參與가 일반화됨에 따라 軍部의 엘리트 민족주의는 점차로 대중적 民族主義로 바뀔 준비가 마련되어가고 있었다.

## (2) 戰爭과 새로운 民族主義

1930년 전반에 걸친 타이의 政治는 음모와 반음모로 이어지는 불안정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38년 말 피분(Phibun=Luang Phibunsongkhram)의 내각이 들어서면서 안정성을 얻게 되었다. 피분의 재임시 타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 民族主義가 정착하게 되었다.

12살(1909)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1914년에 졸업한 피분은 훌륭한 복무 기록 덕분에 1924년에서 1927년까지 프랑스에서 上級 將校 훈련을 받고 귀국하였다. 이미 이 유학기간 동안 그는 1932년 軍部 쿠데타를 주동한 青年 將校들의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1934년부터 그는 강력한 지도력의 필요를 역설하여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친양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그는 특히 매스 미디어의 유용성을 일찌기 깨닫고 이것을 政府 목적용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1936년 12월 首相에 취임한 피분은 國防相과 內務相을 겸하면서 강력한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는 취임 직후 國內 舊勢力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국회의원의 임명을 곧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관철했다.

피분의 첫번째 정책은 경제적 民族社會의 실현과 관련되었다. 즉 그는 타이 사회내에서 지배적 經濟勢力인 中國人們에 대한 억압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排外的 태도만을 보인 것은 아니고 西洋曆의 채택, 國旗와 國歌에 대한 경례의무 제정, 國語使用의무화 등 서양식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였다.

한편 外交政策면에서는 反佛政策을 취함으로써 1940년 전후하여 인도차이나반도에 진주하기 시작한 日本과 親交政策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서방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西洋으로부터 “동생” 취급을 받던 설움을 극복케 하는 것으로서 한때 타이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日本의 敗亡이 가까워지고 聯合國의 피분정권 정복을 위한 지하공작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反피분운동이 강력해지기 시작했다. 피분의 遷都計劃과 관련하여 議會는 1944년 7월 피분을 실각시키고 대신 쿠앙 아파이웽 (Khuang Aphaiwong)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日本과의 격리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1932년에 결성된 쿠데타 동맹은 완전히 분열되었다.

### (3) 냉전기간의 타이政府

1945년초 필리핀이 미국에 합락되고 베마가 영국에 재탈환되면서 타이정부가 제일 걱정한 것은 聯合國에 의한 타이의 軍事占領이었다. 따라서 타이는 英國에 대하여 舊英領 베마의 반환을 비밀리에 제안하고 美國에 대해서는 日本과의 협조와 대미선전포고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었음을 타이정부는 설명하였다.

1945년 8월 15일 日本의 항복선언이 있자 곧 타이 政府는 戰爭의 不法性과 無效임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아파이웡수상은 日本과의 협조를 이유로 사직하였다. 이에 타이 議會는 세니 프라모즈(Seni Pramoj)를 새 首相으로 선출하였다.

戰後 英國은 戰爭期間동안 타이가 행한 反英活動에 대해 보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美國의 壓力を 통해 완화되었다. 프랑스와의 경우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였으나 캄보디아와 라오스領 타이 영토를 할양함으로써 어려움은 극복되었다.

1946년의 외교위기시 타이 政府의 실력자는 戰爭期間동안 海外에 체류하던 王의 국내 섭정이었던 프리디(Pridi)였다. 1946年 3月 정식으로 首相에 취임한 프리디는 새 헌법을 제정하고 국내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46년 후반기의 새로운 사태의 돌발로 인해 이러한 개혁작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즉 1945年 12月에 귀국한 아난다 마히돌 國王이 6月 9日 암살되는 사태를 맞아 프리디는 연루의 혐의를 받고 사직하였다. 海外로 망명갔다가 곧 귀국한 프리디는 東南亞 反植民連帶運動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권과의 연결을 의심받게 되었고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47년 11월 8일에 다시 쿠데타가 발생하여 戰時 首相이었던 피분의 일파가 실력집단으로 재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국제적 반대를 두려워하여 1944년 피분의 後任 首相이었던 쿠앙 아파이웡을 수상으로 내세웠다.

쿠앙정권은 유능한 인사들로 새 내각을 구성하고 새 선거를 준비하였다. 한편 軍과 警察은 좌익 추출운동을 전개하면서 프리디 前首相의 일파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1948년 1월의 선거결과 쿠앙의 민주당이 간신히 승리하고 피분의 파는 크게 패배했다. 그러나 軍部는 군사 쿠데타를 위협무기로 내세우면서 쿠앙을 사임케 하고 피분으로 하여금 재집권케 하였다(1948. 4. 8).

1948년은 世界的으로 냉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여파는 東南Asia에 도 미쳐 베트남, 말레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佛領 인도차이나 등지에 反政府 계릴라 활동이 급작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우기 1949년에는 中國共產黨이 中國本土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美國과 英國은 1949년 4월 피분정권을 공식 승인하였다.

피분은 취임초 두번(1948년 10월과 1949년 2월)에 걸쳐 쿠데타에 의한 도전을 받았으나 진압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그의 억압정책을 정당화

하는데 좋은 명분을 제공하였다.

1951년 6월에도 海軍을 중심으로 하는 反匪團 쿠데타가 반발했으나 유혈 진압에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란진압을 지휘한 1947 쿠데타 집단내의 피분의 대항세력이 강력히 드세하였다.

1932년 절대군주제가 폐지된 이후 15년동안 정부비판자들은 政府에 흡수 되었고 그 이후 방콕의 양대 大學인 출라롱콘大學과 타마사트(Thammasat) 大學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의 지식인들이 생산되어 1950년대를 이끌었다.

匪分治下의 타이의 50년대 經濟는 급속히 회복되었다. 이 회복의 요인은 전부 國外의 것이었는데 하나는 한국전을 계기로 한 輸出 증가였고 다른 하나는 東南亞지역 反共의 보루로서 타이에 대한 막대한 원조였다.

이 원조는 타이 社會와 軍의 근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이 원조자금의 대부분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었기 때문에 軍部支配維持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비판받고 있다. 즉 軍은 民間政治人的 통제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民間政治人을 억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51년 쿠데타 진압으로 드세한 反匪團 力勢을 대표하는 파오(Phao) 將軍 지휘하의 警察이 가장 큰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또한 軍지휘부의 부정부패에 미국원조가 상당히 기여했음도 자주 지적된다. 이러한 비판이 강력하지만 동시에 共產 전복활동으로부터 軍이 나라를 구했다는 신념도 또한 강하다.

한편 政治를 넘어선 社會制度로서의 타이軍의 役割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타이 社會에서 일반적으로 상향계층이동이 이루어지는 制度的 통로로는 흔히 네가지를 꼽는다. 즉 大學教育, 軍, 佛教僧侶 및 企業이 그것들이다. 佛敎僧侶職의 경우 上昇에 한계가 있고 더욱기 獨身律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큰 매력이 없다. 大學教育의 경우 최근에는 완화되었으나 얼마 전까지 入學이 상당히 제한되었다. 企業을 통한 社會的 上昇은 대체로 中國系 人士들에게 국한되었다. 이에 비해 將校充員의 社會的 기반은 비교적 넓고 더욱기 大學教育이 불필요하다. 이런으로써 軍은 政治에 참여해 社會的 富配分에 한 몫을 갖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軍의 政治活動을 타이 社會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된다.

匪분의 軍隊內 적대자인 파오 警察총수와 사리트(Sarit) 將軍은 각기 아편밀매 독점과 복권판매 독점권을 갖고 자신들의 力勢을 구축하고 있었다. 1955년 파오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피분은 대중적 지지로써 그의 力勢을 극

복하고자 그동안의 정치적 제약조건을 대체로 해제하고 1957년초 의회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타이 史上 가장 부패한 선거의 평판을 들을만큼 부정선거를 통해서도 간신히 과반수를 획득하였다.

이 선거에 대한 國民들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이것을 진압코자 사리트將軍을 진압사령관으로 임명했으나 사리트는 오히려 시위군중을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진압사령관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1957년 9월 그는 장교단을 대표하여 피분의 사임과 파오의 퇴진을 공식으로 요구하였다. 이것을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사리트는 1957년 9월 17일 쿠데타를 일으켜 피분 정권을 실각시켰다. 피분과 파오는 外國으로 망명길에 오르고 이때부터 사리트 治下의 새 政府가 시작되었다.

사리트의 개혁작업은 秩序의 회복과 타이적 전통가치의 회복이라는 명제 하에서 시작되어 정치적 안정을 구축하는데 두어졌다. 그의 정치 스타일은 권위주의적, 反議會主義의였으나 그의 재임중에 상당한 經濟發展도 이룩되었다. 그러나 그의 강점인 단기적 안정의 달성을 장기적 불안정과 위기라는 땃가를 치루면서 달성되었는데 이 불안정과 위기는 바로 현재의 타이의 정치상황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sup>(5)</sup>

## II. 타이랜드의 社會文化的 概觀

### 1. 타이랜드의 人口와 種族構成

#### (1) 타이의 인구

1900年 以前에는 정확한 人口調査가 없었던 관계로 人口를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학자들의 추계에 따르면 1800年에 約 4百萬, 1900年에는 7百萬으로 추정된다(Keyes, 1987:12). 여기에서 전통 타이 社會에서 항구적으로 겪었던 人力不足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人口增加는 대단히 빠르게 이루어져 첫번째 人口調查가 있었던 1911年에는 8百30萬이었고 1960年에는 2천6백만, 1970년

(5) 이 이후의 타이史는 현대정치과정에서 취급될 것이다. 여기에서 굳이 지적해야 할만한 사건은 사리트의 뒤를 이은 타놈 키타카초론(Thanom Kittikachorn) 首相 재임 10年만인 1973年에 시민저항에 따른 혁명이 있었고 이 이후 타이政治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였다는 점이다.

〈表 1〉 타이人口의 種族構成(추정 : 難民除外)\*

種族集團	地理的位置	比率
타이어 使用集團		(83.0)
삼인(中部타이)	中部 타일랜드	25.0
北東타이(Isan, Thai-Lao)	北部 타일랜드	31.0
北타이(Khon Muang, Yuan)	南部 타일랜드	20.0
南타이	南部 타일랜드	4.0
타이모슬렌	中部 및 남부 타일랜드	1.0
기타(Phu Thai, Yo, Lue, Shan, Lao Song, Lao Phuan)	中部 타일랜드	2.0
오스트로—아시아 使用集團		(2.3)
몬(Mon)	中部 타일랜드	0.2
크메르	캄보디아 접경지역	1.5
쿠이(Suai)	北東 타일랜드	0.1
부족집단(Lawa, Thin, Khamu)	北部 타일랜드	0.1
말레이족	南部地方(말레이반도)	3.0
이민집단		
중국	도회지	10.5
베트남	北東 타일랜드 및 도회지	0.2
인도인 및 기타(버마인 유럽인 일본인)	도회지	0.1
기타부족		
카렌(Karen)	北部 타일랜드	0.5
호몽 및 미엔	"	0.2
기타(Akha, Lahu, Lisu)	"	0.2
계		100.0

\* 이 표는 Keyes 教授가 作成한 것임. Keyes 上揭書, p.16.

에는 3천 4백만, 그리고 1980년에는 4千 480萬이었다. 人口增加率이 가장 높았던 때는 2차대전 以後, 특히 1950年에서 1970年 사이였는데 이때의 增加率은 年 3%를 넘어섰다. 1974年的 增加率은 2.74%였고 이것이 1980年代初에는 2.2%로 떨어졌다. 이 추세를 바탕으로 할 때 1990年度의 人口는 約 6千萬으로 추산된다.

타이 政府는 1947年에서 1973年 사이에 특히 높은 人口增加率을 持援했었다. 이러한 政策은 中國人 이민과 그 자손들로부터의 위협을 막는데 높은 增加率이 방어무기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出產率 政策을 政府가 公式的으로 포기하기 이전인 1970年代初부터 많은 女性들은 產兒制限을 實施하고 있었다. 이러한 產兒制限은 家

族計劃協會(the Planned Parenthood Association)이나 人口 및 共同體開發協會(the Popul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같은 民間團體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1970年代 중반까지 이미 政府도 產兒政策計劃을 推進하기 시작하였다.

이 政策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호의적이어서 제3세계국가 중 人口抑制政策에 성공한 경우중의 하나로 타이가 꼽힌다. 예컨대 1950年代와 1960年代 3%가 넘었던 增加率은 1970年代 후반에 들어와서 2%로 줄었고 1980年以後로 2% 未滿으로 되었다.

다른 제3세계 國家와 같이 타이랜드의 경우도 都市人口의 급격한 增加를 經驗하였다. 1947년만 해도 人口 2萬名 以上 都市에 거주하는 總人口는 5%에 불과했으나 1967년에 그 숫자는 12%에 도달했고 1980年 セン서스에 의하면 23.6%가 된다. 都市人口增加는 특히 방콕 수도권 人口의 增加가 눈에 띈다. 그리고 제1도시와 제2도시의 人口差가 타이만큼 큰 경우가 없다. 제1도시인 방콕의 人口는 제2도시인 창마이의 人口보다 30倍가 넘고 가장 큰 19個都市의 人口를 합한 것보다 많다. 이러한 방콕의 不均衡的 成長은 방콕시의 住民들에게 많은 問題를 야기할 뿐 아니라 都農間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 (2) 타이의 種族

타이의 最近 人口調查에 따르면 總人口의 99%가 타이국인이고 97%가 타이어를 사용하며 94~95%가 佛教信徒로 되어 있다. 이 숫자에 의하면 文化的 同質性의 정도가 상당히 높으나 實제의 사정은 약간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타이 人口調查에서는 種族에 관한 質問이 빠져있고 대신 타이語 使用 與否와 宗教에 관한 물음으로 同質性의 정도를 把握하고 있다. 만일에 實제 種族을 묻는다면 타이 社會는 훨씬 복잡한 사회로 나타날 것이다. 찰스 케이스 教授는 여러 資料를 바탕으로 種族構成을 <표 1>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

### [타이족]

타이랜드人の 80% 以上이 타이語族의 言語를 사용한다. 타이語는 타이랜드뿐 아니라 라오스, 베트남, 中國人們도 使用한다.

20세기 初 타이 政府는 타이語族의 言語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타이

랜드의 言語를 使用하는 사람으로서 規定했다. 따라서 타이랜드語와 다른 言語를 使用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事實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다 표준 타이랜드語는 실제로는 中部 타이랜드, 즉 普語인데 실제로 집에서 도 普語를 使用하는 사람은 전체 人口의 30%밖에 안된다. 따라서 大多數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국어가 타이랜드語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여기고 있다. 北東 타이랜드人们은 타이語系에 속하나 표준 타이랜드語와는 약간 다른 方言인 라오(Lao)語를 使用하고 北部地方 사람들은 캄 무앙(Kham muang)語를 사용한다. 이들 言語는 포르투갈語와 스페인語 만큼 서로 다른데 學校教育을 통해 이들 地方人们도 표준 타이랜드語를 사용한다. 南部타이인들은 팍타이(Pak Tai), 즉 南部語라는 뜻의 방언을 사용한다.

타이語族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종족적 차이는 言語의 차이에만 基盤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 수식어 없이 타이人이라 할 때 이들은 普人 즉 中部 타이랜드人으로 조상이 아유타야왕조, 톤부리왕조, 그리고 쟁크리왕조하의 국가의 백성이었던 사람을 지칭한다. 宗教面에서 이들 普人们的 佛教는 크메르 傳統의 影響을 받은 것인데 이에 비해 北部 佛教는 베마의 影響이 짙은 것이다. 이 두 계통의 佛教는 19세기 중반의 改革을 통해 統一되었으나 部分的으로는 서로 다른 傳統이 繼承되고 있다.

政治的으로 北部 타이와 北東部 타이는 獨立國家에 속했던 地域으로 여기에서 다른 風習이 전래된다. 19세기에 와서 쟁크리왕조하의 타이랜드에 통합되었으나, 이에 대한 政治的 반항과 抑壓에 대한 記憶이 여전히 독자적 文化를 고집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南部 타이의 경우 독자적 文化에 대한 강조가 北部 타이보다는 약하다.

#### [비 타이族語 사용 種族]

오늘날의 타이랜드 地域의 원주민은 본래 타이語族 언어를 사용한 種族이 아니었다. 오스트로—아시아語나 몬—크메르(Mon-Khmer) 계통 言語를 사용한 種族이 이 地域에 지배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13세기 타이족이 이 地域에 定住하면서 몬족과 타이족은 서로 同化되었다. 베마내의 몬족은 베마족과 同化되어 독자적 種族集團으로서 몬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西部 타이랜드와 방콕지역에도 19세기 베마에서 피나온 難民들의 후손들이 모여있는데 이들은 타이어외에 몬족의 언어로 사용한다.

타이族과 크메르族의 接觸은 몬族과의 관계보다 덜 平和的이었다. 오늘날

의 중부 타이랜드를 크메르왕국이 지배하다가 축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싸움이 있었다. 오늘날 캄보디아와의 접경지역에는 백만에 가까운 크메르族이 살고 있다.

타이語族의 言語와 오스트로—아시아語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佛教信者라는 점에서 單一體 意識을 갖는다. 한편 타이語族의 言語를 사용하는 사람중에서 이슬람 信徒들은 타이 모슬렘으로서 독자적 集團意識을 갖고 있다.

타이랜드의 최남부 地域에 살고있는 말레이족의 사람들은 이슬람교 信仰을 자기 集團의 1차적 확인근거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적된 種族들은 스스로를 原住民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移民流入된 中國人들과 스스로를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다. 中國人들은 部分的으로는 19세기 중엽 이전에 移民온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1860~1940年 사이에 유입된 사람들이다. 대량이주는 2차대전이 시작할 때까지로 마감되었다. 타이랜드에 정착한 中國人들은 東南亞의 다른 지역에서 보다 훨씬 더 타이 사회에 同化되어 있다. 그러나 주로 방콕 부근에 사는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아직도 스스로를 中國人(쿤친=Khon Chin)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中國人の 후손(룩친=Luk Chin)으로 意識한다. 그러나 이들은 타이人으로 자처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Sino-Thai”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中國語를 사용하거나 中國식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며 信仰도 大乘佛教가 아닌 小乘佛教이다. 그러나 이들은 祖上에 대한 제사의식을 계속 維持한다.

오늘날 타이랜드에 살고 있는 少數의 베트남인들은 19세기 中盤에 타이로 避難온 캐톨릭 信徒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1954년 프랑스—인도차이나 戰爭 以後 유입된 사람들이다. 一部는 1960年代 送還되었으나 대부분은 타이랜드에 정착했다. 最近에 베트남에서 避難온 사람들은 라오스나 캄보디아 難民같이 永住가 許用되지 않고 있다.

觀光과 아편매매로 잘 알려진, 高山族(hIGHLANDERS)으로 불리고 있는 部族은 타이랜드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種族集團인데 全體人口의 約 1%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比率은 동남아 他國家에 비해 작은 것이다. 이 중에서 타이랜드 北西部에 있는 카렌(Karen)族이 全體 部族民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部族民으로 보질 않고 原住民으로서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種族은 阿片生産으로 유명한 호몽(Hmong: 타이인들은 meo

라고 부르고 또는 Miao로도 알려져 있다)인데 이들은 라오스를 거쳐 中國南部로부터 유입되었다.

최근에 와서 타이政府는 北部타이랜드로부터의 少數民族 유입을 抑制하고 있다. 이 努力은 1975年 이래 라오스로부터 유입되는 部族民들 특히 흐몽族을 對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타이랜드의 宗教

### (1) 佛 教

앞에서 引用된 타이랜드의 國稅調查表에서 보이듯이 全體人口의 95%가 佛教信徒이다. 이렇게 압도적 人口가 佛教信徒라는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佛教는 타이랜드의 國教처럼 되어 있다. 이러한 狀況은 특히 「民族, 宗教, 國王」의 三位一體的 信仰을 國家 이데올로기로 만든 차크리王朝의 政策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타이랜드에 佛教가 들어온 것은 타이地域에 처음 定着한 原住民에 의해서였다. 이들이 처음 타이랜드에 유입될 당시 주위에는 이미 힌두교—불교의 影響을 받은 몬(Mon)族, 크메르族, 벼마族 등이 힌두—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國家를 이루고 있었고 이 주위의 문명권의 影響이 타이族에게 직접 미쳤다.

타이人们은 원래 經典이나 僧侶制를 갖지 않은채 信仰傳統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1세기 以後 獨立된 國家組織을 갖게 되면서 經典을 만들고 僧侶制를 導入하였다. 특히 수코타이國에서 王들은 僧侶의 後援者의 役割을擔當하기 시작하였다.

타이國家가 생겨날 무렵 東南亞 全體의 佛教傳統안에서는 教理상의 革命的 變化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佛教傳統 初期의 長老들(팔리어 및 타이어로 thera)의 가르침에 严格히 따르는 長老佛教(Theravada)를 말한다. 이것은 과거의 大乘佛教(Mahayana)에 대조되는 小乘佛教(Hinayana Buddhism)의 出現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이후 타이의 佛教는 少乘佛教였다.

타이人们은 대다수가 佛教信者라는 사실 그 자체에서만 타이를 佛教國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佛教의 世界觀이 支配的 思考方式이 된 이래 僧侶制는 타이 社會의 基本 축이 되었다.

東南亞의 다른 小乘佛教國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男子는 반드시 일정기

간 佛教團의 한 成員으로 지내야 한다는 이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20세 未滿의 男子는 일정기간 修練僧으로 지내는 風習이 있고 그 이상의 男子도 정식 僧侶期間을 보내게 되어 있다.

修練僧의 期間을 지나는동안 青少年들은 佛教經典을 읽고 쓰는 法을 배우는데 이것이 文字解讀率을 높이는데 寄與했다고 믿어진다. 成人男子가 僧侶가 되어도 카톨릭教와 달리 平生 僧侶로 남아야 될 義務는 없다. 대부분 일정기간 僧侶로 奉仕하는 동안 道德的 訓練을 받고는 다시 還俗하게끔 되어 있다.

정확히 어느정도의 사람들이 일정기간 僧侶로 奉職하였는가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많은 마을들의 경우 全體 成人男子의 3분의 2가 僧侶期間을 거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普遍化된 制度임에 분명하다. 타이 政府는 現在 一時的 僧侶奉職 希望者의 경우 3개월까지 債給을 支給함으로써 이 制度를 後援하고 있다.

佛教僧侶組織이 타이國家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것은 19세기 말엽이었다. 그 이전까지 王들은 자신이 任命한 僧侶에 의해 명령되는 位階秩序 속에 全體 僧侶組織을 포괄시키려 했으나 成功치 못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佛教가 基本的으로 엘리뜨 宗教가 아니라 民衆宗教였다는 점을 반영한다. 王들은 佛教意識을自身이 주관하는 意識으로 대체하려고 努力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王으로서의 자격은 佛教의 正當性을 獲得치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相互作用을 통해 오늘날 佛教와 國王과 타이 民族은 서로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갖는 全體로서 하나의 國家的 信仰으로 發展하게 된 것이다.

## (2) 타이랜드의 소수종교

압도적으로 佛教國家인 타이랜드에서 소수종교는 그 勢力이 대단히 미미하다. 이 소수종교中 가장 큰 宗教는 人口 全體의 3.8%가 믿는 이슬람교이다.<sup>(1)</sup> 이들 이슬람교도들은 대부분 말레이半島와 방콕 주위에 居住한다. 이 중 3%에 해당되는 人口는 말레이語를 使用하고 나머지의 0.8%만이 타이語를 使用한다.

타이語를 使用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여타 宗教의 信徒들과自身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意識하고 있지만 最近에 와서는 타이국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

(1) 이 수치는 同上 p.14의 통계표에 의거한 것임.

이들은 中央政府로부터 소홀한 取扱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말레이의 分離主義運動에 가담치 않고 있다. 대신 이들의一部는 타이 共產主義運動에 가담해왔다.

그러나 말레이語 使用의 이슬람교도는 타이어 使用의 이슬람교도를이 갖는 타이랜드와의 連帶意識을 갖지 못한다. 타이 政府가 타이語 使用의 이슬람교도들을 管理로 使用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그나마도 말레이語 使用의 이슬람교도의 경우는 全無한 편이다.

특히 한때 半獨立的 술탄國으로서의 經驗을 갖는 파타니(Pattani)州 住民들의 距外意識은 강렬하다. 1970年初 이래 分離主義 運動이 地方住民의 支持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支持를 잃어가고 있고 中央政府도 이들에게 유화정책을 實施하고 있다.

이슬람교도 다음으로 많은 信徒를 갖는 소수종교는 基督教이다. 이슬람교도의 數가 約 1百 50萬이 되는데 비해 基督教도의 수는 20萬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全體 社會 속에서의 地位는 이슬람교도와 다른 면모를 보인다.

基督教의 전래는 12세기 캐톨릭 전도자들에 의해 이루졌으나 약간만이基督教信者가 되었다. 19세기 初에 비로소 다수의 전도신부의 入國이 許用되고 또 전도활동도 公式 許用되었다. 그러나 개종자들은 주로 中國系와 베트남系 후손들이었다. 宗教 自體의 전파는 미미했지만 다수의 타이 엘리트들이 자식들을 카톨릭系 學敎에 보냄으로써 影響力은 상당히 크다.

基督教系 學敎와 教會組織은 基督教徒들이 타이 社會안으로 통합되는 것을 도왔다. 따라서 基督教信者가 政府, 軍隊의 高位職에 就任하는 경우는 자주 있다. 地方에 뿌리내린 部族의 基督教道들은 社會안에서 이슬람교도보다 훨씬 距外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分列의인 性格을 띠고 있다.

### 3. 傳統 타이랜드의 社會構造：後見人制

傳統 타이 社會의 社會組織과 社會生活은 基本的으로 佛教의 世界觀의 압도적 影響下에 있었다. 즉, 現世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位置는 前生의 遺產으로 물려받은 캄마(Kamma=業報)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믿어졌다. 힌두교의 影響이 깊은 이 캄마觀은 힌두교의 경우처럼 嚴格한 또는 죽명적인 것은 아니다. 즉, 人間의 장래뿐 아니라 現世에서의 生活도 部分的으로는 自身의 努力으로 改善되거나 개악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自身의 努

力 여하에 따라 現世에서의 社會的 位置는 變化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이 社會構造의 性格을 규정한 것이 존 F. 엠브리(John F. Embree) 教授의 유명한 「느슨하게 구조화된 社會體制」(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상당한 정도의 행동범위가 許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2)</sup> 그러나 실제 傳統 타이社會는 個人的 行動에 대한 여러가지 制約要件들이 있어왔다.

傳統 타이 社會의 位계적 身分秩序는 삭디 나(Sakdi Na) 體制에 의해 잘 整備되어 있었다. 아유타야 王朝時 트라일록王에 의해 선포된 이 체제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신분적 位置에 따라 일정한 양의 土地를 갖게 되어 있었다.<sup>(3)</sup> 그러나 실제 社會構造의 동태적 性格은 단순히 位階秩序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이랜드 社會의 독특한 後見人—被後見人(patron-client) 關係를 中心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

傳統 타이 社會에 있어서 社會內의 基本的인 位階秩序上의 分層은 王族·貴族과 대다수의 農民 사이에서 발견된다. 一般農民과 그들의 主人 사이의 關係는 단순히 土地所有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成人男子는 그들의 主人에 대해 勞役(賦役)의 의무를 지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農民들은 또한 稅金을 납부해야 할 義務를 갖는다. 이러한 賦役과 稅金의 대가로 主人은 農民들의 生活이 질서잡힌 方式으로 전개되는 것을 保障해 주어야 한다. 즉, 主人은 訟事를 처리하고 도둑을 막고 領土의 防衛의 義務를 지게 된다. 이러한 援序에는 宗教的인 것도 포함된다. 즉, 영주들은 僧侶를 持援해야 하고 여러가지 宗教的 儀式에 참가해야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階層의 사람들을 묶는 인적유대가 소위 後見人—被後見人 關係라는 形態를 띠고 근대 타이 社會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後見人制의 바탕에는, 각 사람들은 相對的 權力의 位階秩序 안에서 특정한 位置를 차지한다는 佛教的 社會觀이 깔려있다. 上位에 있는 사람은 下位

(2) John F. Embree, "Thailand-A 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 *American Anthropologist* 53(1950), pp. 181-3. 이 주장을 들려싼 상당한 토론이 그 이후 전개되었는데 관련되는 논문은 Hans-Dieter Evers(ed.), *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s: Thailand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9)에 실려있다.

(3) Sakdi Na 체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체제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Charles F. Keyes, 上揭書, pp. 29-31 참조.

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權力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대신 아랫사람들은 上位者로부터 具體的인 物質的 惠擇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관념되고 있다. 이러한 後見人制는 個人的 노력 여하에 따라 社會的 位置를 바꿀 수 있다는 階級(Class)制와는 相反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 있어 위와같은 後見人—被後見人의 關係는 관료기구나 軍隊組織 안에서 동일한 사회신분 出身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한편 農村社會에 있어서는 上位身分 出身의 한사람 밑에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被後見人們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헹크스(Lucien Hanks) 教授는 “entourage”라는 개념으로 기술한다(Hanks, 1975:197-218).

오늘날에 있어 後見人의 役割은 주로 國家官僚機構 안에서 權力を 장악하는 관리들이 주로 擔當한다. 最近에 와서는 政治人们도 自身의 擔當 분야에서 後見人制를 發展시키고 있다. 이러한 後見人과 被後見人の 유대는 토프 카틴(thot kathin)이라는 佛教儀式을 통해 강화되었다. 이 儀式은 佛教寺院에서 행하는 苦行修道 期間이 끝난 후 後見人이 되고자 하는 富者들이 修道者들에게 세 의복을 기부하는 의식인데 이것을 통해 새로운 後見人—被後見人 關係가 成立된다. 이 과정에서 僧侶들이 중요한 役割을 맡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전국적 規模의 후견인제에서 佛教의 役割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後見人—被後見人 關係는 아직도 地方에서 계속 維持되는 社會構造의 기본 구조이다. 그러나 都市에 있어서는 주로 새로운 教育制度, 그리고 富와 權力의 배분에 의해 규정되는 새로운 階層化原理에 의해 그러한 후견인제는 점차 崩壞되어 가고 있다.

#### 4. 현대 타이랜드의 教育과 社會階級

타이랜드에 있어서 近代式 教育은 출라룽콘왕의 재위시에 시작되었다. 이近代式 教育 도입 이전에 대부분의 教育은 佛教僧侶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따라서 세속지식보다는 宗教知識의 전파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近代式 教育은 이에 비해 國家機關에 의해 고안되고 目的도 國家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러나 近代式 教育이 도입된 후에도 教育은 寺院에서 僧侶들에 의해 내용만 바꿔고 실시되었다. 이러한 “妥協的” 方式은 대체로 1930年代 초반 까지 사라지고 民間人 教師들이 教育을 맡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일부 地方

學校는 아직 寺院 안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學校는 文教部 基準에 따른 별도의 建物에 수용되어 있다.

타이랜드에서 初等教育은 의무제이다. 이 初等教育은 처음에는 4년제였으나 1962年에 7年制로 바뀌었다가 완전히 실시되기 전에 바뀌어 現在는 6年制로 되어 있다. 1980年代 初까지 모든 國民학교는 6年制의 義務教育을 실시한다.

이러한 初等教育 義務制 실시에 따라 타이랜드는 世界에서 가장 낮은 文盲率 중의 하나를 보이는데 1981年度 공식통계로 문자해독률은 90.2%이다. 다만 專門家들은 이 숫자에 약간의 의심을 품는다. 여하튼 이러한 義務教育制를 통해 都市뿐 아니라 農村人口들도 市場經濟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타이 女性들이 산아제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比率이 높은 것도 義務教育의 효과중의 하나로 얘기된다. 또한 이러한 義務education을 통해서 대다수의 타이 國民들은 民族文化의 기본 요소들, 예컨대 國語, 佛教, 歷史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이 教育을 통해 全體 國民들은 國家에 의해 규정된 官僚機構를 중심으로 組織된 社會世界 속에서 행동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타이 國民의 대다수가 義務education에 순응하고 있지만 이 단계 이상의 教育에 참가하는 사람의 數는 상당히 적다. 中等education과 大學education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출신들이다. 農村의 부모들은 農業에 종사함에 있어 中等education의 必要性을 느끼지 않을뿐더러 地方의 學校의 教育內容이 中等教

〈表 2〉 타이랜드의 教育現況(%) (1960, 1970, 1980\*)

教 育 水 準	1960	1970	1980
無 學	37.7	25.9	15.8
初等教育	54.6	66.9	71.4
中等教育	6.2	4.8	9.3
大學教育	0.2	0.7	2.2
其他(宗敎教育)	1.0**	0.5	0.2
不 明	—	1.5	1.1
合 計	99.9	100.2	100.0

\* Charles F. Keyes, *Thailand: Buddhist Kingdom as Modern Nation-State*, Boulder: Westview, 1987, p.146.

\*\* 여기에는 不明도 포함.

育準備用으로는 충분치 않은 이유도 있다. 이러한 學校들간의 격차는 타이社會에서의 계급간의 격차를 반영하고 동시에 그것을 재생산해내고 있다.

위의 表에서 보듯이 1960年에서 1980年 사이에 無學者의 數가 현저히 즐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中等學校에 입학하는 사람은 조금만 增加했다. 1981年 통계에 따르면 해당연령의 학생중 국민학교에 등록된 사람의 比率은 97.7%였는데 중학교의 경우는 28.3%에 불과하다. 대학교에 가는 사람의 수자는 해당 연령총 人口의 4.5%에 지나지 않는다. 希望者는 누구나 登錄하고 파트-타임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람캄행(Ramkhamhaeng) 대학 登錄者를 합해도 12.6%에 지나지 않는다.

大學進學者들도 어떤 학교에 입학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계급에 관련된 地位를 예상한다. 지배엘리뜨가 되는 가장 확실한 方法은 출라롱콘 王立陸軍士官學校(Chulalongkorn Royal Military Academy)에의 入學이다. 1948年에 개편되고 1953년에 1회 졸업생을 낸 이 학교에의 入學은 대단히 까다롭다. 1970年代 初까지만 해도 타이 原住民이어야 했는데 父母 모두가 타이랜드生이어야 함을 증명해야 했다. 이것은 反中國人 政策과 관련되는데 1973年 革命 이후 공식 철폐되기는 했지만 관행 그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陸土보다는 못하지만 海士나 空士도 社會的 상승이동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 간주된다.

최근까지 民間 관료기구의 엘리뜨들은 대부분 출라롱콘대학과 타마사트대학(1934年 창립) 출신이었다. 지난 몇십년간 大學의 數는 늘었으나 이중 몇개는 특수한 성격의 것이었다. 예컨대 國立開發行政大學院(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대학원 교육만 실시하는데 사실상 고위 관리들의 훈련과 연결되어 있다. 마히돌대학(Mahidol University)은 의과대학으로 실라파콘(Silapakorn) 大學은 미술대학이다. 카세차르트(Kasettsart) 大學은 農業大學인데 이 大學 출신들은 灌溉省, 土地省, 林產省의 엘리뜨로 진출한다.

대부분의 大學이 방콕에 집중되어 있으나 북부의 콘 캔(Khon Kaen), 남부의 송클라(Songkhla) 등에서 大學이 설립되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學生들은 방콕출신이다.

방콕 시내의 람캄행 개방대학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1971년 설립되었고 스리 나카린위로테(Sri Nakharinwirote) 大學은 사법대학이다.

모든 기술 및 사법대학 출신은 정부의 最高位職에 오르는 일이 드물고 대부분 교사로 진출하거나 商工業 분야에서 숙련노동의 부분을 담당한다.

위에서 말한 엘리뜨 教育機關의 입학은 대부분 입학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여기에 입학하는 學生들은 방콕이나 창마이에 있는 最上級의 공립 또는 사립학교 출신들이다.

身分징표의 國家的 체계로서의 教育은 全體社會 속에서의 분명한 地位認識源의 役割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내 大學뿐 아니라 海外유학도 기회의 관문역할을 한다.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해외유학은 上流層 또는 中上流層 가정에게만 가능했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經濟發展의 결과로 특히 방콕시내의 中流層도 해외유학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國內 大學의 입학이 어려워진 이후 많은 사람이 해외유학을 나간다.

외국유학 대상국은 대부분 英語使用國으로 美國, 英國外에 오스트릴리아, 캐나다 및 필리핀이 포함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해외 학위 소지자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관리 임용에 있어서 타이 政府는 이들 중에서도 차별대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國內有力者가 소속되어 있는 동창회가 조직된 學校의 출신들이 選好되었다.

#### 참 고 문 헌

Embree, John F.

1950 "Thailand—A 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 *American Anthropologist* 52,

Evers, Hans-Dieter, ed.

1969 *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s: Thailand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Hanks, Lucien M.

1975 "The Thai Social Order as Entourage and Circle," in G.W. Skinner and A.T. Kirsch (eds.), *Change and Persistence in Thai Societ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Keyes, Charles F.

1987 *Thailand: Buddhist Kingdom as Modern Nation State*. Boulder: Westview.

Terwiel, B.J.

- 1983 *A History of Modern Thailand, 1767~1942.* St. Lucia, Queensland (Australia):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Wyatt, David K.  
1984 *Thailand: A Short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